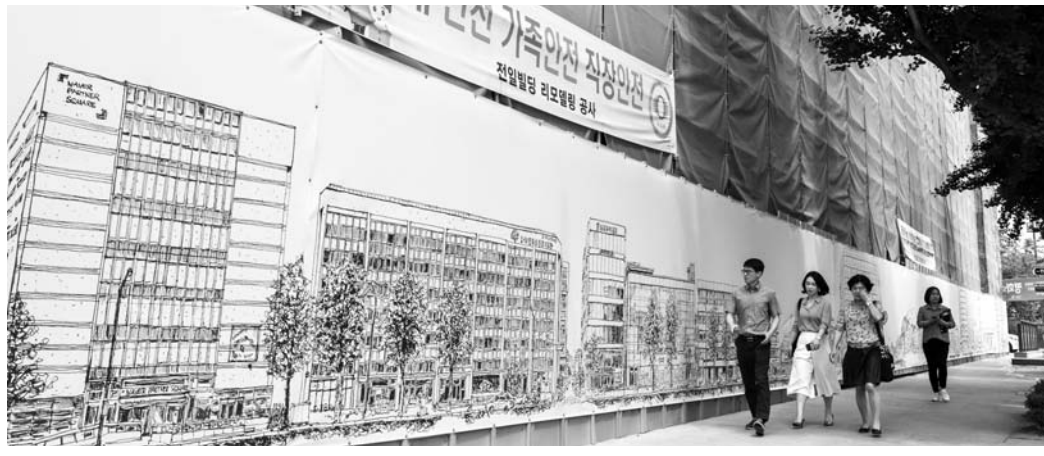


# 공공부문 저작권 42.5%만 응모자에 귀속

### 문체부, 창작물 공모전 525건 점검 어문분야 귀속 비율 37% 가장 낮아 지자체 저작권 인식 제고 시급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 발간도



지난해 실시한 '전일빌딩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하(아틀리에 38 건축도시연구소 소장) 건축사의 작품 '기억을 품고 풍경 그 너머'.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이상문학상 파문은 창작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새삼 저작권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슈였다. 국내 대표 문학상인 이상문학상은 도서출판 문학사상사가 1977년 제정한 상으로 전통과 권위를 자부한다. 매년 대상과 우수상 작품을 수록해 1월 수상작품집을 펴내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수상자가 스스로 상을 반납해 문학계에 논란을 낳았다.

김희희 작가는 당시 언론과의 통화에서 "상을 줬다고 주최 측이 작가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작가의 권리를 취하면서 주는 건 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기호·최은영 소설가도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이상문학상 주최 측 문학사상사 요구에 반발해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했다.

문학사상사는 "제44회 이상문학상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와 그와 관련해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관련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동력과 그에 따른 가치가 투영된 권리다. 시대 변화에 따라 오늘날 저작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만큼 특정 수상을 빌미로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작권은 비단 문학출판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중앙부처, 지자체의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저작권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도 응모자에게 귀속된

것은 42.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4년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 신장 등을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권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였으며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 저작권 인식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공모전 건수 대비 응모자 저작권 귀속 비율은 2016년 41.1%, 2017년 45.9%, 2018년 53.2%로 지속적인 높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9년 38.7%로 하락했다. 이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 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서비스 개선과 등록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개편한 저작권등록시스템(CROS)을 지난 2일 개통했다. 이전의 복잡한 저작권 등록신청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관리번호와 간편결제, 휴대전화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도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여기에는 출판, 웹툰, 공모전 등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접하는 문제들과 평상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계약서 해석 기준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사례집은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 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 분배 등 모두 8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도서 인기

### 2월 한달간 47% 증가 손글씨 관련 책 잘나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도서가 인기다.

온라인서점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취미 도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특히 '팬아트#페이퍼아트북'이 큰 사랑을 받았으며 예쁜 글씨체를 배울 수 있는 책들 역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인터파크의 주간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든 책들 중 4권이 손글씨 관련 책이다. 주요 도

서로는 200가지 유려피어 요리법을 소개하는 '아주 쉬운 그림 레시피북'을 비롯해 페브릭 포장법을 담은 '첫번째 보자기 선물', 겨울왕국 스티커 컬러링북 '스티커 컬러링4:디즈니 겨울왕국', 프랑수아 지수 '설렘처럼 달콤한 자수와 소품'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관련 도서를 한데 모은 기획전 '집안에서 사부작 사부작'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인터파크 가정 분야 MD가 추천하는 핸드메이드·요리·인테리어 관련 도서를 소개하고, 기획전 도서 2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증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로나 확산에 통영국제음악제 취소

### '문웅휘&원재연 리사이틀'도 연기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가 무산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축제·공연이 잇따라 취소·연기되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제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통영국제음악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통영국제음악제단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정부의 대응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올해 음악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0 통영국제음악제는 '리얼리티'(REALI-

TY)를 주제로 이달 27일부터 4월 5일까지 통영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올해는 23개국 363명의 아티스트가 26개 공연을 마련했었다.

제단은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절한 시점에 페스티벌 일부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30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웅휘&원재연 듀오 리사이틀'이 잠정 연기됐다. 유·스퀘어 관계자는 "현재 기획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새로운 날짜가 결정되는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3월 금호아트홀 모든 대관공연이 취소 및 연기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가곡과 아리아의 밤' 관중 없이 공연한다

### 오늘 나주 안성현음악홀 실황 녹화 온라인 공개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광주지역 모든 공연이 연기·취소됐지만 관중을 초대하지 않고 진행되는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하우스 콘서트 봄이 오는 소리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 5일 오후 7시 나주 안성현음악홀에서 열린다. 무지크바움유스오케스트라 학부모회와 T&T 예술기획에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관중이 없는 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연 녹화 영상은 공연이 끝난 후(사)문화공동체 무

지크바움 밴드 어플리케이션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취소될 뻔 했지만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정신적인 치유를 얻길 바라며 함께 코로나 19를 이겨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레퍼토리는 이원주의 '배를 노래', 조두남의 '새 타령', 정애련의 '별을 케는 밤' 등이다. 또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전에 들린 음성', '극장 지배인' 중 '친애하는 젊은이여', '코지 판 투테' 중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등도 만날 수 있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이해령·조윤수·송아영·양정희,



송아영

박찬규

테너 김태연·김시흥, 피아노 박찬규가 출연한다.

공연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전국이 위기인 가운데 이번 공연으로 관객분들이 조금이나마 힐링하기를 기대한다"며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리며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 연구 논문 현황 공모

###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은 출판 산업에 관한 연구 논문을 현황 공모한다.

출판, 유통, 서점, 도서관, 독서, 독자 등 출판과 관련된 주제로 출판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응모 건수는 제한이 없으며 최대 3년까지 공동연구도 가능하다. 학생의 경우 접수 시작일 기준 참가자 전원이 자격에 해당해야 한다.

학생 부문 500만원, 일반 부문 1000만원 등 모

두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자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bookstat@kcpa.or.kr)로 참가 신청서 등 서류와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학생 참가자는 재학, 휴학, 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상식 및 발표회는 오는 11월 예정이며 수상작은 향후 자료집으로 발간 및 출판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b>꽃젠광주센터</b>   | <b>우리 뷔페</b>  | <b>개성전통한방삼계탕</b>  | <b>동양철학원</b>  |
| 동구금남로4가치과연철학부근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꽃젠 자석 쿠션 신발<br>☎ 062)232-6625, 010-3640-6625                     |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b>2월17일 오픈!!</b> 정갈새로운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식대장부 거래가능)<br>☎ 062)381-0066, 010-3085-0140 |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이 가능합니다.<br>☎ 062)383-3454, 010-2106-0424                         |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br>☎ 062)224-7687, 010-2611-7687  |
| <b>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b>  | <b>김동일쉐프</b>  | <b>광명천막기업</b>   | <b>석당화랑</b>   |
|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br>☎ 062)526-5475, 010-8621-5959            |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드람) 김비빔국수, 갈비탕, 육개장, 곰장떡볶이,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br>☎ 062)228-1975, 010-9622-8938                       | 북구 천변우로 285-1(뉴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량광,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br>☎ 062)526-6153, 010-6646-7282 |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만남을 추천합니다.<br>☎ 061)337-7712, 010-5288-3257 |
| <b>향촌</b>   | <b>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b>  | <b>연아불교용품</b>   | <b>천을귀인</b>   |
| 서구상무화원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br>☎ 062)371-0583, 010-3947-0005 |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곰탕의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br>☎ 062)464-1425                       |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망)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br>☎ 061)334-0088                      |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br>☎ 010-7186-6894          |
| <b>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b>   | <b>우영생기원</b>  | <b>나주산약초</b>  | <b>박당화랑</b>   |
|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b>원장 이상선·박민규</b> ☎ 062)511-3388        |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분야개인지도<br>☎ 062)236-2655, 010-3646-2977    | 나주시 동점문길 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br>☎ 061)333-4514, 010-3620-7268                              |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b>대표 박환승</b> ☎ 062)222-6866                     |
|   | <b>고전방</b>  | <b>신신예술의집</b>   |   |
|   |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b>대표 김희중</b> ☎ 062)224-4869   |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b>대표 서태석</b> ☎ 062)222-1936   |   |